

이규상의 「김부자전(金富者傳)」 연구

- 긍정적 부자상 형상화를 중심으로 -

서신혜*

<차례>

- I. 시작하며
- II. 이규상이 그린 김한진의 삶
 - 1. 입전(立傳)의 초점 '원망 받지 않은 부자'
 - 2. 부자 김한진의 치부법
- III. 조선시대 치부담과 비교한 「김부자전」의 특성
 - 1. 치부 혜택의 한계
 - 2. 치부 방식의 윤리성 및 현실성
- V. 이규상의 「김부자전」 서술의 시대적 의의-마무리를 곁다려

<국문 요약>

조선시대 치부담 중에 긍정적 부자상을 보기 힘든데, 「김부자전」에 형상화된 김부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우리 역사에서 실존했던 긍정적 부자상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의미가 있다.

이규상은 「김부자전」을 쓰면서, 부자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받지 인물을 부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내용을 수미상관으로 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問答)으로 제시하는 형식을 취했다.

부자 김한진은 권력으로 재산을 지킬 수 없다고 여기며 몸소 늘 열심히 일하였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에 적합한 일꾼 운용을 하였다. 또 때에 따른 손익(損益)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재산운용을 시종일관 추구했다.

조선후기 치부담과의 비교담을 통해서 볼 때, 「김부자전」은 치부의 목적과 혜택이 개인의 범위를 넘어선 예라는 점, 치부의 방식이 긍정적이면서도 현실적이어서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연구소 연구원

다른 이들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예라는 점 등에서 특수하다.

주제어 이규상(李奎象), 일몽고(一蒙稿), 김부자전(金富者傳), 김한진(金漢鎭), 긍정적 부자, 치부(致富)

1. 시작하며

이 글은 이규상(李奎象: 1727~1799)의 「김부자전」을 고찰하되, 우리나라 치부담(致富談)과의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긍정적 부자상의 발굴이라는 이 작품의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규상은 영정조 시기에 살았던 문인이다. 그는 명문가인 한산 이씨였지만, 과거에서 몇 번 떨어진 후 벼슬에 대한 뜻을 접고 평생 학문과 문장에 전념하며 살았다. 하지만 집안이 좋고 아버지와 동생 등이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당대 여러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하며 살았던 인물이다.

이규상의 문집 『일몽고(一蒙稿)』는 한산 이씨 문중에서 보관해 오던 문집인 『한산세고(韓山世稿)』 안에 포함되었던 것(19~31권)이다. 여기에는 시(詩), 서(書), 설(說), 서(序) 등 다양한 글이 실려 있으며, 권 28에는 총 17개의 전(傳)이 실려 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김부자전이다. 양반이 열녀, 효자, 충신을 입전(立傳)한 경우는 많다. 하지만 재물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양반이 한 부자를 입전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도 특이한 일이다. 긍정적인 부자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에도 특별히 이 작품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의(敵意)가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역사상 실존했던 긍정적 부자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만으로

도 이 작업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규상에 관해서는 아직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가 쓴 『병세재언록』을 살핀 것,¹⁾ 미술계에서 그를 조명한 것,²⁾ 그의 시나 전을 다룬 것³⁾ 등 몇몇이 있다. 전문 연구 논문은 아니지만, <문헌과해석>에서 18세기 인물 특집을 하면서 이규상을 대상 인물로 다룬 것이 있어서 그를 살피기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⁴⁾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그가 조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규상이 남긴 글이 여럿이고, 당대 쟁쟁한 인물들과 두루 교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규상에 대한 논의는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규상이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 김부자전을 형상화했는지, 치부의 문제에 관해서 이규상이 제시한 김부자라는 인물의 특수성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역사상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살필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 치부담들과 비교하여 「김부자전」만의 의의를 부각시켜 나갈 것이다.

김부자전 전문을 번역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김부자는 인천부 사람이다. 이름은 한진이요 부리(府吏)와 파총(把摠)을 지냈다. 보진(補賑)으로 가선대부에 승자(陞資)되었다. 그 집안 재산

1)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고전 한문분과 독해 자료 소개-병세재언록」, 『민족문화사연구』5집, 민족문화사연구소, 1994, 253~273쪽; 김수영, 「일몽 이규상의 병세재언록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 1999; 전희진, 「이규상의 병세재언록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0, 1~82쪽.

2) 유흥준, 「이규상 일몽고의 화론사적 의의」, 『미술사학』4집, 미술사학연구회, 1992, 31~76쪽.

3) 이성원, 「일몽 이규상의 詩세계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1; 김영숙, 「일몽 이규상의 傳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 1999.

4) <문헌과해석>33호, 문헌과 해석사, 2005년 겨울.

은, 고을 사람의 말에 의하면 돈이 만 냥에 가깝고 곡식이 천석에 가깝다고 들 한다. 거부들의 예를 보면 원망을 받는 일이 많은데 김부자의 경우 서운해 하는 사람이 적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김부자라고 부른다.

(2) 병술년 가을 내가 인천부로부터 요양차 와 있었는데 부자의 둘째 아들 집이었다. 부자의 집이 그 위에 있고 셋째 아들의 집이 앞을 둘러싸고 있었다. 집은 문학산을 등지고 있었다. 한 마을 십여 가옥이 모두 부자의 소관이 었다. 김부자 부자(父子)의 집은 제도가 일정하여, 주방이 두 칸, 마루가 두 칸, 방이 두 칸이고, 또 한 칸 방 좌우에 처마를 더하여 모두 일곱 칸이었다. 반은 곧게 하고 반은 곡선이 되게 하여 거기에 기와를 덮었다. 마당은 겨우 말을 돌릴 수 있을 정도였다. 중문이 두 칸이요, 창고가 두 칸이며, 행랑이 두 칸이고, 허랑(虛廊)이 두 칸이었는데, 또한 곡선 직선의 제도로 건축하여, 풀을 사면으로 덮었으니 담으로 지은 것이다. 네 집의 일정한 제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가? 집에 완호물(玩好物)은 없이 다만 농기구와 풀을 저장해 놓았을 뿐이었다. 기르는 닭과 개 약간을 묶어 놓은 외에 과일이나 채소도 많이 심지 않았다. 생각건대, 농사지을 힘에 방해되는 것을 막고자 해서인가 싶다.

(3) 그 집 재산은 부자의 아버지로부터 증식되기 시작했다. 그 아버지는 처음에 화살을 묶어 고기를 잡다가 농업으로 바꾼 후에야 비로소 가산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 아버지 때에 창고에서 불이 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끄고자 하였으나 그 아버지가 말리면서 “수고할 것 없다” 하였다. 불이 꺼지자 빗자루로 지붕을 쓰니 덮은 풀 아래가 모두 돌과 흙으로 되어 있어서, 불이 그 위를 지났으나 돌과 흙 아래 곡식은 그대로였다. 부자의 아버지는 평생 쫓신을 신었으며 손수 타작마당에 떨어진 이삭을 주웠다. 마을에서는 인색하다고들 했다.

(4) 부자는 올해 54세로 부부가 해로하였다. 아들만 다섯이요 딸은 없다. 얼굴은 다골(多骨)하며 이마가 넓고 눈이 크며 코가 길고 입이 크다. 수염은 적지만 넓게 퍼져 있고 귀는 낮고도 안으로 말려 있다. 키는 크지만 구부정하고 말은 적지만 조리가 있으며 꾸밈없이 시원하게 말한다. 얼굴에 온화한

기운이 많다.

(5) 내가 묻기를, “치산에 기술이 있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기술은 없습니다. 나는 다만 부지런히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부지런히 하면 늘 남보다 앞섰던 까닭에 간혹 유리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 될 것을 알아서 했던 것은 아니니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재산이 늘거나 주는 문제는, ‘절제하여 쓰는 것’이나 ‘함부로 낭비하는 것’과 관계됩니까?” 하니 “절약하니 식량이 남는 듯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경작하고 재물을 아끼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였다. “장사는 농사에 비할 때 어떻습니까?” 하니 “농사는 땅에 달려 있으니 땅이 결국 근본이 되지요. 장사는 삼 년을 종사한다고 할 때 일 년은 이익을 보지만 이 년은 손해를 보게 되어 땅이나 소를 팔아야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당신은 말을 타고 다니며, 육식을 위주로 하여 먹으며 비단옷을 입습니까?” 하니 “말을 타면 반드시 자주 流와 나란히 하기 위해 말에서 내려야 하는 운수를 당하게 되니 말 타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말 타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육식은 해물류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비단은, 시골에서 비단 옷을 입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니는 것과 같으니 어찌 비단옷을 입겠습니까. 몸이 또한 건강하면 옷이 무거운 줄 모릅니다. 이런 까닭에 비단옷을 입지 않습니다.” 하였다. “당신의 아내는 깊은 곳에 거하며 나오지 않습니까?” 하니 “우리 고향 풍속에는, 백성이 감히 내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백성의 예에 따를 뿐입니다.” 하였다. “자식에게 글을 가르칩니까?” 하니 “양민의 자식은 글을 잘 하기가 쉽지 않으며 또한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름이나 쓰고 문권이나 보면 충분합니다. 12세가 될 때까지 글을 가르치고 장성하면 농사일에 들여보냅니다.” 하였다. “당신의 부유함으로 첩사나 만호의 공명을 바꾸고자 하십니까?” 하니 “바꾸기도 어렵고 비록 바꿀 수 있더라도 낮은 관직으로는 오래도록 먹고 살 수 없으니 본분을 지키느니만 못합니다.” 하였다. “어찌 많은 종들을 두어 편안하게 수고로움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하니 “백성의 노비는 도망하면 추쇄하기가 어려워니 고용인을 부리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고용인은 길게 부릴 수

있습니까?” 하니 “무릇 사람은 오래되면 마음이 변합니다. 고용인은 3~4년이면 좋습니다.” 하였다. “당신의 친인척 중에 당신에게 근심을 끼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니 “나이 드신 숙부가 한 분 계십니다. 먹는 데에 궁핍한 때면 곡식을 보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행히 춥고 배고픔은 면하고 삽니다.” 하였다. “여러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와 뜻을 같이합니까?” 하니 “지금은 다행히 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만 다른 날이야 어찌 알겠습니까.” 하였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한 후로는 다시 관리하거나 점검할 수 있습니까?” 하니 “이미 가문이 나누어졌으니 일임할 뿐입니다.” 하였다.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경작할 수 없는데, 당신이 농사를 지을 때는 좋은 땅을 택하여 농사를 짓습니까?” 하니 “이와 같이 합니다. 내 땅이지만 좋지 못한 땅은 남에게 주면 사람들이 경작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쉽게 묵은 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것을 골라서 내가 스스로 거기에 농사를 짓습니다.” 하였다. “어찌하여 일체 좋은 땅으로 사지 않습니까?” 하니 “물건을 어찌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하였다. “밭과 논 어느 것이 이롭습니까?” 하니 “속담에 ‘밭을 팔아 논을 사는 것은 좋은 음식을 위함이다’라 합니다. 하지만 밭은 1년에 이모작을 합니다만 논은 가끔 가뭄이나 홍수 때문에 잃게 됩니다.” 하였다.

(6) 대저 부자의 말은 졸렬한 것 같으나 실질이 있었다. 그렇다면 아주 긴한 밑바닥에서부터하여 이후 것을 만든 것이니, 황로(黃老)의 뜻에 몰래 합하는 자인가. 천만의 재화를 쌓았고 다섯 아들을 두었으니 순수한 복을 누릴 만한테도 스스로 얹어지지 않았다. 그의 예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진실로 시골의 어두운 사람이라도 가능할 것이 아닌가. 아침저녁 밥 먹는 시간에 남이 만약 거기 가면 번번이 맨 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까닭으로 술에 들어가는 짚이 항상 서너 말에 가까웠다고 한다. 공경하는 행동거지를 갖춘 가운데 능히 스스로를 지키고 밖을 부러워하지 않으니, 이것이 ‘귀한 집 자손은 마루 끝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⁵⁾’는 것을 말함이다. 그 말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없는데도 되었다”는 것은 천명을 이는 자의 말에 가깝다. 이런

5) 『史記』卷117, 「司馬相如列傳」.

까닭에 「김부자전」을 짓는다.⁶⁾

6) 李奎象, 『一夢稿』, 「金富者傳」: 金富者, 仁川府內人也. 名漢鎮, 曾經府吏把摠, 以補賑資嘉善. 其家產, 則邑人稱, 以錢近萬兩, 穀近千石云. 居富例多怨, 而金富者少人憾. 邑人皆呼以金富者.

丙戌秋, 余自仁府避病, 富者第二男家. 富者家居上, 其三男家擁前. 家負文鶴山, 一村十餘家皆富者所管. 富者父子家一制度, 二間廚, 二間軒, 二間房. 又一間房左右加廡, 合七間. 一半則直行, 一半則曲行, 覆之瓦. 庭纔可旋馬. 中門二間, 庫二間, 行廊二間, 虛廊二間, 亦建以曲直之制, 草以覆四面, 則築之垣. 四家一制有必所以然者邪. 家無玩好物, 只貯農具且積草. 索所畜鷄犬若干外, 果蔬亦不多植. 意者防其妨農之力邪.

其家產自富者之父始植, 其父初, 則結箭捉魚, 仍移農業, 始立家產. 其父時, 火出其庫, 人欲撲滅之, 其父止之曰: “無勞若也.” 火熄, 乃持帚掃屋上, 則覆草下, 皆築石土, 火經於其上而石土下穀, 則自若然. 富者之父, 終身曳芒鞋, 手拾禾場之餘粒, 里中多言其吝矣.

富者今年五十四, 夫妻偕老, 有五丈夫子, 無一女. 面多骨額長目廣鼻長口潤, 髯小而廣, 耳卑而捲內. 身長而傴僂, 言罕而有條理, 無質言快語. 面上多和氣.

余問曰: “治產有術乎?” 曰: “無術. 吾則徒知勤農, 而農務則每先於人, 故或有利然, 莫知爲而爲也, 非人力可能也.” 余曰: “產之興敗, 係節用與濫費乎?” 曰: “節用糧似餘, 然有勤耕吝財而不能脫貧者矣.” 余曰: “商何如農也.” 曰: “農則土也. 土終有本, 商則曾事三年, 一年得利, 二年見敗, 賣田牛而償之矣.” 余曰: “爾騎馬而行, 重肉而食衣帛乎?” 曰: “騎馬必頻見齊流下馬之數, 不如不騎, 故不用騎也. 肉食不過海族之易買者也. 帛則鄉曲衣帛如衣繡夜行, 焉爲帛也. 身亦康健, 不知衣重, 是以不帛衣也.” 余曰: “爾妻深居不出乎?” 曰: “吾鄉風俗, 百姓不敢隔內外, 吾則百姓隨例而已.” 余曰: “教子以書乎?” 曰: “百姓之子, 善文未易, 亦何用也. 記姓名, 見文券, 足矣. 限十二歲, 教之文, 年長則入於農矣.” 余曰: “以爾富欲換僉萬戶功名乎?” 曰: “換且難, 雖可換, 薄官不久食, 不如守本分矣.” 余曰: “何不置置奴僕, 逸於代勞乎?” 曰: “百姓之奴, 逃則難推, 不如雇人矣.” 余曰: “雇人可長使邪?” 曰: “凡人久則心變, 雇人三四年好矣.” 余曰: “汝族姻間有貽汝憂者乎?” 曰: “有老叔一, 食窘時送粟, 餘人幸免飢寒矣.” 余曰: “有多子而能同父志乎?” 曰: “今幸遵吾之教, 他日則安知也.” 余曰: “諸子分產之後, 能復管檢乎?” 曰: “既分門矣, 一任渠耳.” 余曰: “一人不可多畊田, 爾之農擇好田而爲之乎?” 曰: “同是. 吾土而薄田, 給人則人不願田易陳, 故擇其劣者, 吾自爲之矣.” 余曰: “何不買一切好田乎?” 曰: “物何可齊也.” 余曰: “田與水田, 何者利贏乎?” 曰: “諺曰 ‘賣田買畜爲玉食矣’, 然田則一年再食, 水田則頻失於水旱矣.”

大抵富者之言, 若拙而實, 則從喫緊底做來, 暗合於黃老之旨者邪. 積貨千萬有五子, 能享純祥而不自覆, 則其規模準, 則固非鄉人貿貿者可能矣. 當其朝夕飯時,

II. 이규상이 그린 김한진의 삶

1. 입전(立傳)의 초점 ‘원망 받지 않은 부자’

사실 부자가 남의 원망이나 미움을 사지 않기 어려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듯하다. 물질만능주의 사회가 되어 버린 현대뿐만 아니다. 조선시대에도 이 문제가 고민거리였음이 드러난다. 이익이 남긴, 「부자는 무리의 원망을 받는다 富者衆怨」는 글이 바로 그런 예이다.

소광(疏廣)의 말에 “부자는 여러 사람이 원망한다” 하였다. 내가 나의 재물을 모으니, 남에게 해로울 것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남은 없는데 나만 있으면 해치려는 자가 있게 되고, 남은 잃는데 나만 얻으면 성내는 자가 있게 되며, 남들이 우러러보는데 내가 인색하면 서운해 하는 자가 있게 된다. 그런데도, 혼자서만 부를 누리면 원망이 모여들게 마련이니 원망이 지극하면 비방이 생기고, 비방이 생기면 재화가 싹트고, 재화가 싹트면 몸이 망하는데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재물이 있으면 권세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좋은 척하여도 마음속으로는 미워하며, 나와서는 아첨하고 물러가서는 욕하여 백방으로 선동하여 갈수록 더하니, 악이 쌓여 풀 수가 없는 것이다. 근세에 재물을 모은 집들의 경우 그 인색하고 어그러진 행동이 전해져 이야깃거리가 되는데, 그 실체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도 그 집이 또한 결국 좋지 못하여 혹은 후손이 끊어지고 혹은 재화를 만났으니, 역력히 셀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일 수 있고 많이 쌓인 휘방은 빠도 사그라지게 하니, 이것은 이치가 반드시 그러한 것이다. 요즘에 왕왕 욕하는 사람들은 막연히 뒷날에 이런 꼴이 될 것을 모르고 있으니, 비웃을 만하다.⁷⁾

人若往之，輒不以空口返之，以是下鼎之米，常近三四斗云。其恭恪於舉止之間，能自守而不外慕，是謂千金之子，坐不垂堂者矣。其曰：“莫之爲而爲”者，亦似知命者言。是以作金富者傳。

7) 이익, 『성호사설』 권7, 人事門, 「富者衆怨」: 疏廣之言曰: 富者衆之怨也, 吾阜吾財, 疑若無害. 然人無而我有, 仗之者至矣, 人失而我得, 怨之者至矣, 人仰而我蓄, 慊

부자들이 사람들의 원망을 듣는다는 세삼 특별할 것이 없는 언술로 시작할 글이지만, 이익의 언술 중 두 가지는 상당히 흥미롭다. 하나는 ‘자신이 재물을 모아보니 해로울 것도 없더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자가 그렇게 잘못을 하거나 악을 행한 경우는 별로 없더라’는 말이다. 부 혹은 부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었던 일반 사대부들과 달리 이익은 객관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익의 경우,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는데도 부자들이 남에게 미움을 받고, 그 사람이 여럿이다보니 결국 불행을 맞더라는 현상만 말하고 말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규상이 소개한 「김부자전」의 가치가 부각된다. 이규상은, 그저 ‘부자들이 사람들의 원망을 받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탄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원망 받지 않는 부자의 예를 찾아내고 이것에 중점을 두어 글을 읽도록 구성하되, 그 사이에 부자 김한진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및 평가를 곳곳에 담아내었다. 그리하여 읽는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알게 했다. 궁극적으로는 다른 이들도 그와 같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사실적인 관찰과 평가를 한 것이다.

원문 (2)에 의하면, 이규상은 병술년 병 때문에 요양을 하느라 우연히 부자 김한진의 둘째 아들 집에 머물게 된 것을 계기로 「김부자전」을 쓰게 된 것이다. 이규상의 생몰년을 생각했을 때 병술년은 1766년이다.

之者至矣. 然而獨享則怨之罔也, 怨極則謗生, 謗生則禍兆, 禍兆則身亡有不自覺者也. 有財則有權, 故面悅而心嫉, 進諛而退詆, 百道構煽十層增益, 惡積而不可解如. 近世貨殖之家, 其鄙吝乖忤之迹傳作談柄, 其實多不然, 而家亦不終或絕後或罹殃, 可歷數也. 衆口燦金, 積毀銷骨, 理有必然也. 今時往往有貪黷人, 邈不知他日作這樣人, 可哈.(한국고전번역원 역)

부자 김한진의 집은 문학산 근처에 있다고 했다. 요즘 행정구역상으로 인천 남구에 속한 문학산 아래쪽에는 조선 당시 인천부청사가 있었다. 청사 근처에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었을 것이며, 그 중에 유복하여 머물 만한 곳에 갔을 것이므로 이규상의 요양처로 자연스레 그 집이 정해졌을 것이다. 부자의 이름도 김한진이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그가 사는 곳까지도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이규상이 형상화한 김한진의 모습이 사실적인 삶을 강조하였다.

이규상은 김한진의 둘째 아들집에 머물며 부자 김한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들은 후 이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민하여 『김부자전』의 중심 내용을 잡았다. 한마디로 이규상은 김한진이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남들로부터 원망을 받지 않고 사는 것’⁸⁾을 특이하게 여기며 이것을 이 전의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글의 서두인 (1)에서 김한진에 대한 간략한 인정기술(人定記述)을 할 때, 그가 ‘보진(補賑)으로 가선대부에 승자(陞資)되었다’고 하였으며, 곧이어 ‘거부들의 예를 보면 원망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부자에 대해서는 서운해 하는 사람이 적다.’ 라고 했다. 이어서 더 이상의 설명은 없이 바로 김한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전(傳)이라는 장르의 일반적인 순서가 인정기술 후에 사적기술(事蹟記述)로 바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가 인정기술과 사적기술 사이에 굳이 이런 문구를 둔 것은 이를 통해 그의 사적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안내 장치임을 알 수 있다. 왜 원망하는 사람이 적은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후 사적 내용은 왜 그랬는가에 대한 답에 해당한다.

8) 이후 직·간접 인용하는 것은 『김부자전』에 나오는 것이다. 앞 항에서 이미 전문을 제시했으므로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번역문만 제시할 뿐 원문을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다른 문헌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만 서지 사항을 표시할 것이다.

마무리 부분인 (6)에서 이규상은, 김한진에 대한 평을 하면서 그 사이에 슬쩍 “아침저녁 밥 먹는 시간에 남이 만약 거기 가면 번번이 맨 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까닭으로 솔에 들어가는 쌀이 항상 서너 말에 가까웠다고 한다” 라는 말을 붙였다. 앞부분에서 보진(補賑), 즉 진휼하는 곡식을 많이 내어 놓은 것에 대한 포상으로 가선대부가 되었다고 한 말과 이 문구가 이어지면서 김한진이 이웃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가 반복 강조되고 있다. 글의 첫 부분과 끝부분에, 남들과 김부자의 관계에 관한 말을 붙여 마무리 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런 수미상관법을 통해 글의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고, 그가 김한진을 입전한 이유가 그런 ‘공정적 부자상’을 드러내는 것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규상은 이런 방식을 통해 김부자의 행적을 드러내고, 그의 특이함을 강조한 것이다.

2. 부자 김한진의 처부법

그렇다면 김한진은 어떻게 해서 원망 받지 않은 부자가 되었는가? 이규상은 김부자가 처부한 방법을 설명하여 그 답을 제시하였다. 본문 (5)를 잘 살펴보면 그 방법이 나온다.

첫째, 김부자는 권력으로는 재산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부하고 나면 명예를 좇는 사람과 달리 김한진은 우직하게 자기 분수를 지키며 열심히 일을 계속하였다. 보통 사람들은 부를 갖추고 나면 명예욕이 생긴다. 그래서 신흥 부자들이 돈으로 벼슬을 산 경우는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당신의 부유함으로 첩사나 만호의 공명을 바꾸고자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자는 뜻밖의 대답을 한다. “바꾸기도 어렵고 비록 바꿀 수 있더라도 낮은 관직으로는 오래도록 먹고 살 수 없으니 본분을 지키느니만 못합니다.”

돈으로 벼슬을 살 수 있지만, 높은 벼슬은 살 수 없다. 벼슬이 있으면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높은 벼슬일 뿐 낮은 벼슬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들은 명예욕으로 벼슬하려다 결국 재산까지 잃는 경우도 당한다. 김부지는 이런 상황을 살펴보고 벼슬하려는 마음은 접고 오히려 분수를 지키며 재산을 유지하자고 적극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 자식에게 글을 가르치느냐는 물음에 대해 김한진은, “양민의 자식은 글을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글을 배워봐야)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름이나 쓰고 문권이나 보면 충분합니다.” 라 답한다.

조선 후기에는 과거의 폐해도 극심했고, 몇몇 가문에서 요직을 독점하면서 공부로 통해 출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럼에도 과거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아 다들 거기에 매달린다. 특히 자식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는 더욱 쉽지 않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니 남들 같으면 자식 공부를 시켜 과거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농사짓는 집에서 글이란 쓸모가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생활에 꼭 필요한 문권이나 보는 정도에서 그치게 한다는 것이다. 세상을 읽어볼 때 벼슬길을 바라고 권력을 얻으려 노력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에 따라 행동한 것이 김한진이다. 그의 태도는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한 분야에 집중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

둘째, 김부지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조선시대 치부담 중에 인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치하는가에 관해서까지 자세하게 다룬 것은 드물다. 그런데 이규상은 김한진에게 이것을 질문하여 중요한 대답을 듣는다.

보통 사람은 부유하게 되면 힘든 노동은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 종을 두고 편히 부리려 한다. 하지만 “어찌 많은 종들을 두어 편안하게 수

고로움을 대신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김한진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한다. 자신은 종들을 부리지 않고 임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것이다. 종이 도망하는 일도 많고, 도망한 후에는 추쇄(推刷)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렇게 말한 것이다.

또 사람이 자주 바뀌면 서로의 특징을 알고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한 자리에 사람을 들이면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의 심리이다. 하지만 김부자는 종이 아닌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였고, 그 고용인도 일정한 시점에 계속 바꿨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규상은 추가로 질문한다. 고용인은 길게 부릴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김한진은 “무릇 사람은 오래되면 마음이 변합니다. 고용인은 3~4년이면 좋습니다.” 라 대답한다. 한 사람이 오래도록 같은 일을 하면 마음이 해이해져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므로 정기적으로 사람을 교체한다는 것이다. 고용인들과 다시 호흡을 맞추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 이에 따라 사람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무슨 물건이나 무슨 일이든 내 것이라 생각하면 다루는 방식이 달라진다. 특별히 농사의 대부분이 토지와 관련이 깊다는 면을 고려하면 김한진이 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효율성 문제와 연관된다. 김한진은 한마디로 척박한 토지는 자신이 경작하고, 기름진 땅은 다른 고용인에게 준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성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흥이 나지 않아 더 이상 일을 지속하기 어렵다. 또 현 상태가 너무 나쁘면 노력할 마음이 아예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 그것이 남의 땅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김한진은 이 점을 잘 알아서 좋은 땅은 고용인에게 주고, 나쁜 땅은 자기가 경작했다. 땅이 기름지므로 조금만 신경 쓰면 소출이 날 것이므로 고용인들은 그 수고를 할 것이요, 또 주인이 기름진 땅을 양보하고 척박한 땅을 몸소 기경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고마워서라도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러니 김

한진은 땅의 소출은 최대한 하면서 남들과 달리 사람들에게 ‘원망 받지 않는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았든 김한진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유형·무형의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셋째, 김부지는 때에 따른 손익(損益)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 드러나는 치부담 중에는 시세차익으로 부자가 된 장사꾼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기업형 부농(富農)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전자에 비해 많지 않다. 농사야 일 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수확할 수 없는 것이라 더딜 수밖에 없으므로, 일확천금이나 거짓말 같은 부를 추구하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 상공업이 더 적당했던 까닭이다. 그런데 상업과 농업을 대비해 놓고 어떤 것이 더 나오냐고 묻는 이규상의 질문에 부자 김한진은 후자를 택한다. 한마디로 장사는 손해와 이익을 보는 것이 너무 자주 바뀌므로 위험하다는 것이다.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므로 한두 해 돈을 벌 수는 있지만 한순간에 다 날릴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가 단기간의 큰 수익보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을 택하고 있음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논농사와 밭농사 중에 후자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밭은 1년에 이모작을 합니다만 논은 종종 가뭄이나 홍수 때문에 잃게 됩니다.”라며 자신은 밭농사에 집중한다고 말한다. 물론 물 사정도 좋고 태풍의 피해도 없고 별도 좋을 경우 논농사의 수익이 밭농사보다 나을 것이지만, 당시 조선은 자연재해에 따른 연도별 수확량의 차이가 컸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밭농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인지하여 이것에 더 힘을 쓴다는 것이다.

요컨대 김한진은 남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남들이 꺼리거나 생각하지 못한 방식을 선택하여 행한다. 남들이 꿈을 따라 갈 때 현실

을 보고,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현실의 필요에 따르며 특정 생업에만 집중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변함없이 검소하면서도 근면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고, 남들에게 싫은 것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였다. 이것은 졸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이야말로 그의 부합의 실재를 이룬 방식이다. 그리고 이것이 남의 원망을 듣지 않으면서도 부자가 된 김한진만의 방식이다.

Ⅲ. 조선시대 치부담과 비교한 「김부자전」의 특성

과묵한 탓인지 모르나, 필자는 특정 부자를 입전한 인물전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잡록(雜錄)과 설화집에서 여러 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때문에 잡록과 설화집에 실린 여러 치부담과 비교하여 김부자전 이 여타의 치부담과 어떻게 다른 지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우성·임형택이 편역한 『이조한문단편집』에 나오는 치부담을 중심으로 한다.⁹⁾ 이규상의 생몰년대와 비슷한 시기인 18세기 이후의 기록 중심이고, 다양한 서적에서 뽑은 것이며, 많은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를 때, 조선 후기 치부담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드러나며, 그 점에서 김부자전 의 특징적인 면모도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9) 이우성·임형택은 『이조한문단편집』상·중·하를 펴내면서 富, 性과 情, 世태(신분 동향/市井周邊), 민중기질(정향과 좌절/풍자와 골계)로 部를 나눈 바 있다. 이 중 富를 다룬 제1부에는 총 42가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 부분은 『청구야담』, 『동야휘집』, 『동패낙송』, 『계서야담』, 『海東野書』, 『鶴山閑言』, 『雪橋別集』, 『此山筆談』, 『醒睡稗說』 등 18세기 이후에 나온 주요 야담류 및 잡록류를 다양하게 살펴 관련 이야기를 뽑아 놓은 것이다.

1. 치부 혜택의 한계

조선시대 치부담에서는 대부분 치부의 혜택이 개인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수많은 이야기에서, 극심한 가난을 겪으며 경제력의 필요를 인식한 개인이 재물을 모으겠다고 굳게 결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부를 이루려는 목적이나, 일정한 부를 이룬 후에 그 혜택이 미치는 범위는 개인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넓혀지더라도 형제나 자식 등 3촌 이내의 매우 가까운 가족을 넘지 못한다. 『광작(廣作)』(12~17쪽)은 자기 부부와 두 형제 부부의 생계만에 집중하며 치부하는 이야기이고, 『부부각방(夫婦各房)』(18~22쪽)은 부부가 재산 증식만을 위해 일했다가 노후를 위해 양자를 들이는 이야기까지만 있다.¹⁰⁾

치부의 혜택이 남에게 미치는 이야기가 드문 것은 물론이요, 치부의 과정에서 남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남이 받을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실제 주위 사람들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부자가 된 사실 하나에만 집중하며 감탄하고 칭찬할 뿐이다.

신부가 시집을 와서 보니 담장 안이 텅 비었고, 쌀독도 비었는데…신부가 몸소 시당숙에게 편지를 써서, 천 냥을 빌려주시면 한 해 안에 갚겠다고 했다.…(감초를 매점매석하여 돈을 번 이야기 생략)…집을 사고, 살림살이를 장만하며, 종들을 들이니 하루아침에 부요하게 된 것이다.…전에 나무라던 사람들이 모두 현명한 부인이라 칭찬하였다.…“사람이 세상에 나서 먹고 입을 것이 충분하고 향리와 친척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다면 충분하지요. 어찌 부자가 되기까지 할 것입니까. 또 부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니 저는 진실로 원하지 않습니다.”…자손들이 현달했으며 다시는 군색하지 않았다고 한다. (밑줄-필자)¹¹⁾

10) 『鹽』(43~49쪽); 『嶺南寒士』(135~139쪽); 『講談師』(189~191쪽) 등에서 이런 양상이 잘 드러난다.

『해동야서(海東野書)』에 「득현부빈사성가업(得賢婦貧士成家業) 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이다.¹²⁾ 가난한 집에 시집온 신부가 시당숙에게 빌린 돈으로 감초를 매점매석하여 치부한 이야기를 실은 것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평소 가격의 5배나 내고 감초를 이용’하게 만든 손해를 끼쳤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적 인식은 전혀 없고, 자기 집을 부요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만 기뻐하고 당당해 한다. 그러면서 ‘내 가족 내 친척’만 생각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나 동시에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을 바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최소한 서술된 문맥에서는 누구도 그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한 집을 부자로 만든 여인을 칭찬하는 것에만 열중한다. 이 이야기뿐 아니라 다른 여러 이야기에서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로이다. 부를 이루고 이후 그 개인이 평안을 누리는데 이야기는 다수이다.

하지만 이규상이 소개한 「김부자전」은 다르다. 부자 김한진은, 스스로는 물론 가족 모두가 꾸준하고도 열심히 노력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을 고용하고 그 역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 뿐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재산을 차곡차곡 쌓아간다. 부를 쌓아가는 과정 중에도, 또 부자가 된 후에도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다. 앞에 전문이 있으나 논의의 편리를 위해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의 친인척 중에 당신에게 근심을 끼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이 드신 숙부가 한 분 계십니다. 먹는 데에 궁핍한 때면 곡식을 보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행히 추위와 배고픔은 면하고 삽니다.”

11) 『海東野書』, 「得賢婦貧士成家業」: 其婦人入其家, 則環堵蕭然, 無甌石之資…夫人親自裁書於夫堂叔, 願貸千金, 限以一年還償. …買屋子, 脩釜鼎, 立婢僕, 一朝饒足. …向之訕譏之人, 咸稱賢婦, …“人生斯世, 衣食才足, 鄉里親戚稱善人, 足矣. 安用富爲. 且富者衆之所忌, 吾固不願也.”…子孫榮顯, 未嘗窘乏云云.

12) 『이조한문단편집』上, 富部, 37~39쪽에 「甘草」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경작할 수 없는데, 당신이 농사를 지을 때는 좋은 땅을 택하여 농사를 짓습니까?” “이와 같이 합니다. 내 땅이지만 좋지 못한 땅은 남에게 주면 사람들이 밭갈기를 원하지 않아서 쉽게 묵은 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좋지 못한 것을 골라서 내가 스스로 거기에 농사를 짓습니다.”

처자식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은 고려조차 하지 않는 이야기가 많은 데 비해 김한진은 일가친척의 어려움을 돌보고 있음이 드러난다. ‘숙부’ 및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지칭에 드러나듯, 그는 평소 친인척을 두루 챙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궁핍한 때면 곡식을 보낸다’고 하였으니 상대가 손을 내밀기 전에 그가 그 필요를 돌보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 이미 땅이 많으니 소작을 주고 자신은 쉴 수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는 것도 특별한 것인데, 게다가 좋은 땅은 남에게 주고 척박한 땅을 직접 경작한다는 것도 역시 남을 배려하는 김한진의 특징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히 후자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부자상은 여느 치부담 등에서 보기 어려운 일화이다.

2. 치부 방식의 윤리성 및 현실성

조선시대 치부담에 치부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에는 긍정적이거나 현실적인 경우가 거의 없다. 치부 방법으로 소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① 가장 일반적인 것이 특정 상품에 대한 매점매석의 방법이다. 매점매석이 아니면 속임수로 부자가 된 이야기도 비슷한 유형으로 드러난다. 여항 여인이 집을 팔아 그 돈으로 한약재인 택사(澤瀉)를 매점매석하여 한 달 사이에 번 돈으로 평생 호의호식했다는 『기문습유(紀聞拾遺)』의 이야

기,¹³⁾ 앞에서 말한 ‘감초’를 매점매석한 이야기도 모두 이런 예이다.

②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면서 일하고, 가족관계까지 포기하면서 심하게 절약하고 심하게 노동하여 돈을 모았다는 이야기도 상당수 있다. 『차산필담(此山筆談)』1권의 삼난금옥(三難金玉) (66~72쪽)에는 충청도 몰락 양반이 부자가 되겠다고 술장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찾아온 형에게 까지 밥값을 받으며 돈을 벌었다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③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쩌다 찾아온 행운으로 부자가 되거나 갑작스런 횡재를 맞게 된 경우이다. 『삼교별집(雪橋別集)』4권 중 만록(漫錄)에는 충주 가흥 지방에 사는 양민 황희숙이 젊은 시절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이 콩 2천말을 사서 황희숙에게 맡기며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팔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고 가는 이야기가 있다. 다음해 와 그 이듬해에 심한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황희숙이 난색을 표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투어 비싼 값에 콩을 사 갔고 노인은 돌아오지 않아 결국 황부자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황희숙과 그 노인이 이전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요, 황희숙이 무슨 선행을 베푼 일도 없는데 말 그대로 횡재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이 치부담 중에는 이유 없는 행운에 의한 이야기가 많다.¹⁴⁾

그밖에 정상적이거나 건전한 방법으로 치부한 이야기는 찾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치부 방법의 윤리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고민이나 반성은 없이, 단순히 부자가 된 것에 대한 부러움을 표시하는 데에 그친다.¹⁵⁾ 이런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떤 부자가

13) 「澤瀉」(40~42쪽); 「煙草」(54~57쪽); 「許生別傳」(94~99쪽); 「長橋之會」(174~179쪽) 등.

14) 「大豆」(9~11쪽); 「婢夫」(29~36쪽); 「江景」(50~53쪽); 「南京行貨」(107~110쪽); 「朴砲匠」(120~124쪽); 「陰德」(140~147쪽); 「貸用手票」(168~170쪽) 등.

15) 이 점에 대해서는 최기숙, 「돈의 표상성 : 18·19세기 경제관념의 문학적 형상화 양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노력 없이 그저 부자가 되기를 맹목적으로 바라는 심리가 놓여 있다.

하지만 김부자전을 살필 때, 김한진은 치부 과정에서 남을 해치지도 않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터무니없어서 따라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한 것도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그가 치부과정에서 한 일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이미 들어온 재산을 화재 등으로 잃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
- 타작마당에 떨어진 이삭까지 줍는 아낌(이상 본문 (3)에 나타나는 내용. 김부자의 부친)
-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서두르기
- 손익의 위험이 높은 장사는 하지 않고 지력(地力)에 따라 꾸준한 농사만 짓기
- 말 타거나 비단옷 입는 것을 하지 않고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삼
- 전표를 쓰는 등 농사일에 필요한 만큼만 자식을 가르침
- 관직을 사느라 기웃거리지 않고 본분을 지킴
- 부자가 되어서도 몸소 일함
- 노비를 부리지 않고 계약 고용인을 3~4년 단위로 씀
- 자식들에게 분재(分財)하되 이후로는 일임함
- 좋은 땅은 남에게 주고 스스로 묵은 땅을 기경함
- 기상변화에 비교적 덜 민감한 발농사를 위주로 함(이상 본문 (5)에 나타나는 내용. 김부자)

늘 절약하면서도 가진 것을 철저히 활용하는 것, 때의 변화에 따라 차

상-18, 19세기 야담집 소재 돈 관련 일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20집, 국제어문학회, 2003.12, 261~295쪽; 서신혜, 「富 이후 삶에 대한 先人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30집, 한국고전번역원, 2007.12, 305~328쪽 등에서 지적하였다.

이가 있는 것을 피하는 것, 시종 일관한 자세로 몸소 일하며 다른 이들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 분수 이상의 다른 것을 바라거나 기웃거리지 않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한 가지도 남을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며, 반드시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특수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규상은 김부자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관찰하여 전으로 쓰면서 ‘그의 예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진실로 시골의 어두운 사람이라도 가능할 것이 아닌가.’ 라고 덧붙였다. 즉 김부자의 방법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치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며, 다른 모든 사람도 바보만 아니라면 같은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김한진처럼 해서 부자가 된다면 누가 원망하겠는가? 바로 이런 부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이규상이 글 첫머리에서 던진 화두에 대한 답변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다른 치부담과 다른 「김부자전」의 특징이자 의의이다.

이 밖에도 여느 치부담과 비교하여 「김부자전」의 의미 있는 특성으로 지적될 것은 많다. 일반적인 치부담이 추상적 설명이나 묘사에 그친 데에 비해, 김부자전은 주인공의 집안 구조, 주인공 인물의 인상, 모은 재물이나 인적 구성원들의 관리법 등까지 상세히 서술한 점, 부자의 이야기가 야담 문학이나 소설의 이야깃거리가 되는 수는 많으나 이 경우처럼 전(傳)으로 남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전은 매우 의미 있는 글임에 틀림없다.

V. 이규상의 「김부자전」 서술의 시대적 의의-마무리를 겸하여

이제 작가 이규상의 입장에서 왜 이 작품을 썼겠는가에 대해 살펴보아야겠다.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부자’라는 인물유형을 입전하였다는 사실 자체이다. 사실 선비로서 돈, 재산 문제는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이규상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강세황(姜世晃, 1712~1791) 같은 인물도 심각한 가난 가운데 살면서도 돈, 재물에 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을 당연스레 여겼을 정도이다.

살림살이에는 더욱 이는 게 없을 뿐더러 전혀 숨씨도 없어서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몰랐으며, 옷장에 옷이 없어도 묻지를 앓았소. 당신도 내가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서, 내게 한 마디도 하지 않고 혼자 모든 일을 짊어지고 꾸려나갔지요. 그럼 나는 책장이나 넘기고 붓이나 휘두를 뿐이었지요.¹⁶⁾

인용한 부분에서 단적으로 보이듯, 지독한 가난 때문에 죽은 아내 앞에 남긴 글에서도 오히려 돈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글이나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돈 문제에서 완전히 초월할 수는 없기에, 사람들은 사회 현실과 부딪쳐 깨어졌다. 박지원의 <양반전>에 나오는 정선양반은 빌려 먹은 관곡(官穀)이 수천 석인데도 오직 방에 앉아 독서하는 것이 참 선비라고 생각했다. 결국 돈으로 양반의 신분을 사려던 상민에게 ‘반

16) 姜世晃, 『豹菴遺稿』, 『祭亡室文』: …於產業事尤蒙昧而濶略, 瓶無粟而不知, 篋無衣而不問. 子亦知吾如是, 未嘗以一言煩吾耳也, 獨擔荷而經理之. 乃吾則翻書葉弄筆頭而已(박동욱, 서신혜 공역, 『표암 강세황 산문 전집』, 소명출판, 2008, 157쪽).

푼 어치도 안 되는 존재라는 이유까지 들을 정도였다.

각종 서사물이나 설화 등을 볼 때 돈 문제에 대한 태도는 극단적으로 나뉜다. 아예 돈이라는 것을 입에도 올리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거나, 치부의 윤리성 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는 태도로 나뉜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규상이 김부자전을 썼다는 것은 단순히 한 인물을 그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작품의 표면만을 보면 이규상은 김한진이 치부한 방식을 주로 전달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당시 사회 분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부정론도, 극단적인 긍정론도 개입하지 않았다. 재물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되, 다만 재물이 일으킬 수 있는 파괴적이고도 비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았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원망 받지 않는 부자상’을 발견하고 표현한 것이다. 재물에 대해 아예 눈을 돌리거나 혹은 오로지 맹목적으로 재물 자체만을 보는 것은 실은 재물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능력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이규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재물문제를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응시하여 건강하고도 이성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이규상은 김부자전을 씀으로써, 당대 부정시 되었던 삶의 방식, 부정시 되었던 존재를 긍정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물에 대해 신경 쓰고, 이를 위해 조절하고 노력하는 존재가 이전에는 긍정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규상은 김한진이라는 한 인물의 삶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던 것이다. 그런 삶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요,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역시 어떻게 살 것인가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긍정한 것이다. 이 글의 본문이 문답법으로 제시된 것은,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 인물과 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독자도 그렇게 읽도록 하는 의도적인 장치라고 생각한다.

인물전은 주위에서 보거나 들은 인물에 대해 개인적인 흥미나 저작 필요성을 느낄 때 쓴다. 표면적으로는 그 인물의 행적이 사라질까 염려하여 기록한다는 말만 쓰지만, 실제로는 그 인물의 삶이 보여주는 의미를 세상에 강조하거나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고 싶을 때 붓을 드는 것이 보통이다. 그는 김한진이라는 부자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소개함으로써 결국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시했다.

(6)에서 ‘그의 예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진실로 시골의 어두운 사람이라도 가능할 것이 아닌가’ 라고 한 마지막 부분의 언술은, 단순히 치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규상은 김한진이 재물이 주는 편안함 등의 유혹에 거슬러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에 감탄한 후에 이와 같은 언술을 했다. 덧붙여 끝에 가서는 김한진이 ‘천명을 이는 자’에 가깝다고 감탄했다. 그의 평생의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를 인정한 언술인 것이다.

돈이나 재물을 모으는 것 자체는 삶에서 문제가 아니다. 다만 남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며 남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게 하며 어우러져 사느냐 앓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글을 읽고 쓰는 선비의 삶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도 천복을 누리는 삶이요, 천명을 이는 자의 삶이다. 그리고 그런 삶은 모두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규상이 이 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또다른 목소리이다.

이상 우리 역사에서 보기 드문 긍정적 부자의 모습이 드러난 「김부자전」을 살펴보았다. 작자 이규상이 특히 어떤 점에 끌려서 그 인물을 입전 하였는지, 그 인물은 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견지하였는지를 살폈다. 그 후에 우리나라 치부담들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김부자전이 다른지

비교분석하였다. 내용을 다시 요약하지는 않는다.

김부자전 이외에, 부자를 입전한 인물전을 보기가 힘들고 게다가 긍정적 부자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더욱 어렵다. 설화나 잡록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긍정적인 부자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필자가 본 바로는 『이조한문단편집』의 부부(富部)에 있는 이야기 중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부자의 이야기는 「귀향(歸鄉)」¹⁷⁾뿐이다. 최생이라는 선비가 과거에 연거푸 낙방하자 가산을 정리한 후 귀향하여 그것을 밑천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자신만 그 소출을 갖지 않고 흉년으로 힘든 마을 사람들과 종들에게까지 두루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중간에 곡식값의 변동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으나 이는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고 곡식을 이웃과 종들에게 두루 나누어 주어 함께 살고 또 그들도 부자가 되게 해 준다는 면이 부각되었다. 과장된 면이 많은 것 같은 이야기지만,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부자의 모습이 형상화된 것은 이뿐이다.

밭에서 은이 담긴 항아리를 발견하고도 아들들이 방탕해질까 두려워 숨겼다가 각기 자신을 책임질 성인이 된 후에야 항아리를 꺼내어 보여주었다는 「은옹(銀甕)」¹⁸⁾의 경우에도 끝부분에 그들이 이웃을 널리 구제하며 살았다고 썼다. 하지만 남들이나 글쓴이의 평가는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후일담으로 덧붙이는 형식으로 그쳐서 긍정적 부자상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김부자전」이 더 눈길을 끄는 것이다.

부자에 대한 맹목적인 적개심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많은 것이 요즘의

17) 『이조한문단편집』上, 富部, 「귀향」, 3~8쪽. 이 이야기는 『계서야담』에 수록된 것을 가져온 것이다.

18) 『이조한문단편집』上, 富部, 「銀甕」, 165~167쪽. 이 이야기는 『청구야담』에서 가져온 것이다.

현실이다. 또 부자가 되고 싶으나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몰라 여기저기 헤매고, 일확천금을 노리며 돌아다니는 이들도 많다. 부자가 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다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 버리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때에 긍정적인 부자상을 발굴하고 그의 삶을 소개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후 보다 많은 예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一蒙稿』, 『老子』, 『史記』, 『星湖僊說』, 『於于野談』
이우성·임형택 譯編, 『李朝漢文短篇集』상, 일조각, 1973.
전진문, 『경주 최부잣집 300년 富의 비밀』, 황금가지, 2004.
『문헌과해석』33호(이규상 특집), 문헌과 해석사, 2005년 겨울.
김수영, 『일몽 이규상의 병세재연록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 1999.
김영숙, 『일몽 이규상의 傳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 1999, 1~58쪽.
서신혜, 『富 이후 삶에 대한 先人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30집, 한국고전번역원, 2007.12, 305~328쪽.
_____, 『漢文短篇에 나타나는 인물의 재물관 변화 방향과 그 의미』, 『온지논총』21집, 온지학회, 2009, 129~153쪽.
이성원, 『일몽 이규상의 詩세계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1.
전희진, 『이규상의 병세재연록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 2000.
최기숙, 『돈의 윤리와 문화 가치-조선후기 서사 문학의 경제적 상상력』, 『현대문학의 연구』32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181~216쪽.
_____, 『돈의 표상성 : 18·19세기 경제관념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18, 19세기 야담집 소재 돈 관련 일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29집, 국제어문학회, 2003. 12, 261~295쪽.

ABSTRACT

A Study on *Kimbujajeon* written by Lee Gysang

Seo, Shin-Hye

We seldom find a affirmative rich person at the story of acquisition of wealth in Joseon. Kimbuja is the man. So this biography about Kimbuja is so important.

Lee Gysang wrote same phrase beginning and end. At the beginnig, he said that a rich person usually received a grudge by many people, but Kimbuja didn't. At the end, he expressed same that. So all reader read this biography pocus on this point.

Kimbuja's method of acquisition of wealth was summarized 'like a clumsy means but substantial'. He didn't follow the trend, he only did intrinsic works, and he did the works people didn't like do in person. Lee Gysang had present that because of this method people didn't a prudge about Kimbuja.

Key Words Lee Gysang(이규상), Ilmonggo(일몽고), *Kimbujajeon*(김부자전), Kim Hanjin(김한진), a affirmative rich person, acquisition of wealth

논문투고일 : 2009. 10. 18
심사완료일 : 2009. 11. 22
게재확정일 : 2009. 12. 04